

노인 복지 서비스 선택권 확대

익산시, 분기별 1만8000원서 2만4000원으로 증액 가맹업체화 지속적인 협약... 이용자 편의 제공

익산시가 면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선택권 확대에 나선다.

시는 4월부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기존 분기별 1만 8,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2020년 도입한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으로 현재 1만 1,885명이다.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지류로 제공되던 목욕탕 이용권을 올해 1월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로 변경했다. 또한

일부 면 지역에 목욕탕이 없어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내용에 이·미용업소를 추가해 이용자에게 복지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카드를 일괄 지급하고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자동 충전하는 형태로 지원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금액은 도입 당시 분기별 1만 2,000원에서 2022년 1만 8,000원으로 상향된 바 있으나, 올해 6,000원을 추가로 증액해 시는 다음달부터 대상자들이 보다 더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목욕 및 이·미용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현재 77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인의 보건복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의 지원액 상향으로 면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만 1,000명으로 익산시 전체 인구 대비 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시·군·자치단체를 위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자 지난 22일 6개 기관과의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외계층 위한 사랑의 연대’

군산시, 6개 기관 간의 재능기부 협약식 개최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시·군·자치단체를 위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자 지난 22일 6개 기관과의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재능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신건강과 생활 속의 안전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시·군·자치단체를 위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시·군·자치단체의 결과 토대로 선정된 시·군·자치단체에 대한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소규모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전기안전 점검, 반찬 지원, 노력 봉사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ESG 경영 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한전 MCS(주) 군산지점,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K-Water Tech 군산사업소, 카리타스 단체 총 6개 기관으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6개 기관의 대표는 "군산시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복지 자원 연계와 공유체계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일상 속 재능기부 나눔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

군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하여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

를 선정한다.

공개대상자에게는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행정안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이며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2024년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하였으나,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명단공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군산시는 즉각적인 명단 공개보다는 해당 대상자에게 3월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구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개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하는 한편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과세 확립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원광대 교양필수과목 연계... '익산 명소 여행'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익산문화관광재단, 원광대학교와 협력해 지난해 처음 진행한 '원광대 교양필수과목 연계 익산 명소 여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올해는 원광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교양필수과목을 수강 중인 학생 1,200여 명이 이미 여행을 신청한 상태로 여행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이번 명소 여행은 교도소세탁장, 고스라 등 익산의 관광 명소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가페 정원 등을 돌아본다. 학생들이 관광지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익산을 이해하고 지역과 대학 생활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익산시는 이번 여행을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입소문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명소 여행이 타지역이 고학인 학생들에게 익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익산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홍보대사로 성장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원광대학교 신입생들의 익산 여행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학업으로 지친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신입생을 비롯한 청년들을 위한 재밌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 매력 도시 익산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산림 보호 총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익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사업과 이동 특별단속 추진에 나선다.

익산시는 최근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고사목 벌채·파쇄와 예방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며 고사목 1,932본을 베어내고 7,843본에 예방 나무주사를 주입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를 생산·유통하는 취급업체와 화목 연료를 사용하는 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28일까지 함께 시행한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매개곤충 몸안에 서식하다가 수목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한다. 치료약이 없어 한 번 감염되면 모두 고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제사업과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고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서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무단 이동 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보건소,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관리 추진

민물이 깨어나는 봄은 아이러니하게도 스프링피크(Spring peak) 현상이 심해진다. 스프링피크란 봄철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겨울철 상대적으론 낮은 자살률이 전격적으로 매년 3~5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하다.

원인으로는 봄철 일조량 증가로 흐르던 불균형, 미세먼지, 출업과 구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보건소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자살 예방 홍보 및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현수막 걸기 △자살 반발지역에 자살관련 도움기관정보 안내문·포스터 배포 △도시가스 및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내 자살예방 상담 안내 광고 게재 △자살 고위험군에 안부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익산시, 미래농업 발전 방향 전문가 특강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2일 익산농업대학 교육생, 품목별 연구회 회원, 청년농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농업 발전 방향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익산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갈 농업인재 양성과 미래농업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민승규 전 농촌진흥청장은 "익산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익산 농업·농촌의 현주소와 미래농업 발전 전망을 소개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과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참석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